

“대선불복 1년” “민심불복 1년”... 대한민국 정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주한 동티모르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한 靑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았지만 차분하게 지낼 예정이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대권 재수 끝에 당선된 현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인데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父女) 대통령에 오른 날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1주년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약자지결한’ 행사보다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1주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평소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선 1주년인 19일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전 직원,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등 당직자 6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사무처 직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행사 없이 興 지도부·당직자 오찬

이어 저녁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이혜훈·심재철·정우택·유기준·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지난 4월9일 청와대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이후 8개월여 만에 당 지도부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들 오·만찬은 1주년을 맞아 치르는 행사고, 참가 인원규모도 제법 큰 편이지만 약자지결한 자족연이 아니라 송년회 성격이 더 강하고, 오찬의 경우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당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대선 승리 1주년 기념 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처럼 ‘조용한 1주년’은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승리 경험이 많지만 매번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자축하지 않고 ‘자체 모드’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께서는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지난 해 대선 당선 직후에도 잠깐 축하

발언을 한 뒤에 별다른 축하행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당시 야당 대표를 맡아서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의 모든 구청장을 싸늘이할 정도로 크게 승리했을 때도 자축행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이처럼 차분한 분위기는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에 반발한 철도 파업과 장성택 숙청 후의 북한 상황 등 대내외 혼란스런 정세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북한 상황이 위중하고 철도파업이 이어지는 등 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도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경제민주화나 국민대통합 등 대선 때 주창한 일들이 다소 지지부진한 상태고 복지공약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따른 부담감도 조용한 1주년을 맞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격양된 野

민주당은 18일 지난해 대선 후 지금까지의 1년을 ‘정치 실종’, ‘민심 불복의 1년’ 등으로 비판하면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년차인 올해 정치가 가장 역동적이고 살아 숨 쉬어야 할 때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선의 정치가 우리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실을 덮는 데만 정신이 팔린 것처럼 보인다”며 “대선 관련 의혹 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대선개입 의혹 해소는 특검 뿐” 압박

정치권은 나라의 미래와 민생에 몰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정권 안보에 ‘올인’하느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민심 불복의 1년이었다”며 “불통의 장막을 걷고 소통하는 길은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조속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자 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조오영 행정관과 서조규정 조이제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무슨 일만 생기면 피리만 자르고 보는 ‘도마뱀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은 무언가를 숨기고 변명거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주체는 특검이 돼야 할 이유가 지명해진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을 권한이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년 내내 갈등이 지속하지 않았다”라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발걸음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세요



(56) 파리의 인상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 읽었던 책들을 헤아려 본다. 관심분야에 너무 집중된 탓인지 미술관련 서적이 월등히 많이 살짝 아쉬움이 있다. 최근 미술전문 서적뿐 아니라 미술교양 서적이 다양해진 것도 ‘독서 풀림’의 핑계가 될 것 같다.

얼마 전 다녀온 프랑스 파리는 미술과 문화, 철학이 나뉘은 대화가 생생한 도시였다. 오래전부터 문화와 미술이 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고, 현대철학자들 또한 현대회화에 관한 비평을 발표하는 풍요로운 문화적 풍토를 갖고 있다. 시인 폴 발레리는 저서 ‘드가, 댄스, 데생’을 통해 드가론을, 사르트르는 ‘미학이론’에서 마티스와 자코메티를 논하고, 미셀 푸코는 르네 마그리트를 분석해 미술은 문화 철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진화했다. 문화평론가 김현(1942~1990)의 언급처럼 파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수도일 뿐 아니라 예술계의

수도’라 부를 수 있는 이유다. 파리 한 복판, 세느 강을 사이에 두고 루브르미술관과 마주한 채 인상주의 미술이 집결되어 있는 오르세 미술관, 마쉴 ‘드가론’을 읽고 있어서인지 에드가 드가(1834~1917)의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드가는 파리의 오페라극장을 출입하며 악사들과 무대와 분장실, 연습장, 무희의 일상 등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 발레리는 “드가는 인간 형태에 가장 예민한 관찰자였으며 여인의 선과 태도의 가장 잔혹한 애호자였으며 가장 지적인 가장 생각이 깊은 대생의 천재”였다고 찬미했다.



드가 작

‘열네살의 어린 무희’

작품 ‘열네살의 어린 무희’(1878~1880년경)는 얇은 천으로 된 발레용 스커트를 입고 등 뒤로 손가락질 끈 채 잠시 쉬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청동조를 갖고 있다. 시선은 폴 발레리는 저서 ‘드가, 댄스, 데생’을 통해 드가론을, 사르트르는 ‘미학이론’에서 마티스와 자코메티를 논하고, 미셀 푸코는 르네 마그리트를 분석해 미술은 문화 철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진화했다. 문화평론가 김현(1942~1990)의 언급처럼 파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수도일 뿐 아니라 예술계의

위로 향해 있지만 98cm의 어린 소녀여서 미술관을 오가는 관람객들과 눈을 맞추는 듯하다. 한 순간, 한 작품이라도 더 눈에 들어오려고 분주하게 다녔던 발걸음이 멈춰서 있다. 문득 어린 무희처럼 동작을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 기 위해 미술관을 찾았던 게 아닌가 하는 자각이 든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학사>

‘창조포럼’ ‘민생연대’... 지방선거 앞두고 포럼 창립 잇따라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의 ‘포럼’ 창립이 잇따르고 있다.

강원대 광주시장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창조포럼’은 18일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하고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와 박경린 푸른 광주 21 협의회 상임회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창조포럼’은 오는 22일 발족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동대표는 천득염 전남대학교수와 전갑길 전 국회의원, 송갑석 전 전대협위원장, 김준태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 이상욱 광주YMCA 이사장, 최양남 광주YWCA회장, 최동석 광주시의사

회장등 정·재계를 비롯한 관료,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 대표자 44명이 맡기로 했다.

고문은 지선 스님, 조비오 신부, 박광태 전 광주시장, 김영진 전 국회의원, 정동태 전 국회의원,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장, 지병문 전남대총장, 서재홍 조선대 총장 등이 맡는다.

사무총장은 정갑주 변호사가, 처장은 강은태 광주시장 보좌관을 지낸 김병내 전 광주시 직소 민원실장이 맡는다.

창조적인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취지의 ‘창조포럼’은 18개 분과로 세분화돼 정치·경제

는 물론 제 단체 및 이념, 빈부, 세대 간 양극화 해소를 통해 따뜻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게 된다.

오는 22일 열리는 출범식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섭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은 ‘민생실천희망연대’도 지난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과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일자리 창출이 민생의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창립된 ‘민생실천희망연

대’는 상임대표에 최병운 치과병원장, 신일섭 호남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장이 맡았으며, 공동대표에는 광주지역 택시노동조합 최진영 의장, 김준철 텃밭대표, 윤춘추 변호사, 광주지역 아동센터 임업 협회 등 직능분야별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고문에는 이용섭 국회의원과 박성수 전남대 교수가 추대됐다. 이밖에 고문으로는 고재유 전 광주시장, 정상용 전 국회의원, 김종배 전 국회의원, 조영풍 전 광주대 경상대학장 등이 참여했다.

민생실천희망연대는 광주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실현 등을 창립 취지에 담았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지그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시민단체 “지방자치는 정당 공천 폐지부터”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추진 시민행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공천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며 “100여명의 사회원로도들도 성명을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회의원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특위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kfta.korea.com

말은 자신의 얼굴입니다!

‘바른 언어습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바른말, 고운말 사용은 사람과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욕설, 차별적인 말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시작은 ‘욕설’ 등 언어폭력입니다. 바른말, 고운말만 사용해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학부모와 선생님! 학생들의 ‘욕설’ 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고 불건전한 언어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자녀, 학생들과 함께 시청 및 활용해 주십시오!

35.3%

언어폭력 가장 높아 교육부 조사(2013년)

학생언어문화개선캠페인 홈페이지 : www.kfta.korea.com

* 각종 다류멘터리 교육동영상 및 수업자료 등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올바른 교육 훌륭한 선생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광주 교원단체총연합회
전남 교원단체총연합회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정들이 18일 광주시의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2019년 광주 세계 학생언어문화개선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바른말, 고운말’ 교육 자료를 전국에 배포할 것을 약속했다.